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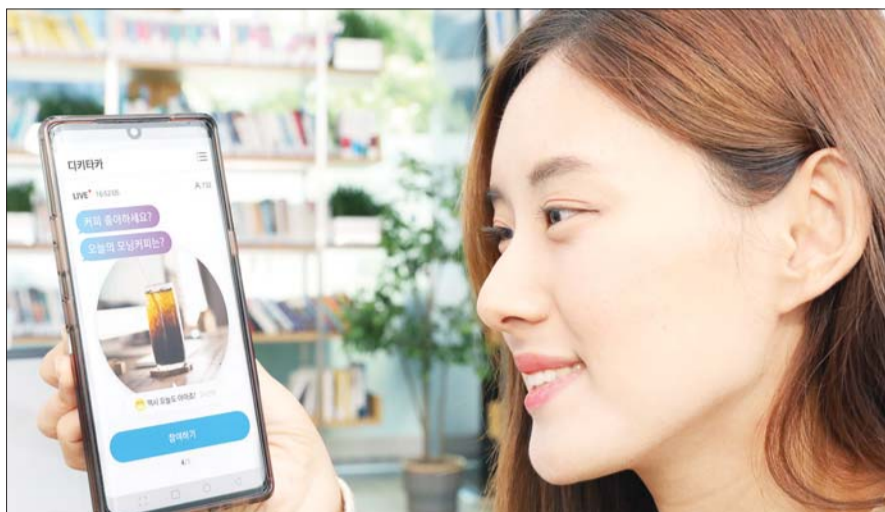
‘빅데이터 큰손’ 이동통신사,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추진

이통3사 모두 예비허가 신청 완료
LGU+, 통합자산·지출관리 넘어
납기일 알람, 출납 알리미 등 준비
KT, 디지코 전환 가속화
고객효익 증가, 소상공인 상생 추진

이동통신사들이 여러 기관, 기업에 흠여졌던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서 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 추진에 나선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이통 3사는 SK텔레콤, KT에 이어 지난달 31일 LG유플러스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KT는 지난 11월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금융사와 협력 등 협업 모델을 모색해오다 자사만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뒤늦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에 나섰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란 흠여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개인의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일 기준은



LG유플러스는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키타카(DIKITAKA)’를 오픈했다. /LG유플러스

행, 카드, 증권, 핀테크업계 등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나선 이유는 통신 데이터와 다양한 분야의 생활 데이터를 확보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자산관리 및 지출관리 서비스 외에도 ▲각종 납부금의 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납기일 알람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출납 알리미 ▲개인의 신용점수를 쉽고 편하게 올려주는 신용 부스터 ▲나도 모르는 숨은 혜택

찾기 등을 신규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찾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또 지난달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디키타카(DIKITAKA)’를 선보인 바 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가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직접 사업권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주고받기를 잘 한다’는 의미의 ‘디키타카’의 변형인 디키타카 서비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운영사측에서 유의미한 주제의 빅데이터 정보들을 먼저 제시하면 사용자 설문 등을 통해 반응을 나타내 통계정보가 형성될 수 있다. ‘정주행하기 딱 좋은 추천 드라마는’이라는 콘텐츠를 클릭하면 구매가 많이 이뤄진 드라마 VOD 톱 10을 추천해준다. 또 ‘요즘 애들, 어디서 뭐 봐’를 클릭하면 1020 세대의 OTT 플랫폼 결제 현황을 보여준다.

LG유플러스의 마이데이터 사업 콘텐츠는 디키타카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디키타카는 신한은행 시범 서비스에 참여를 한 것이고 마이데이터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차이는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선보일지는 아직 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KT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통신 및 금융 데이터를 융합한 초개인화 서비스 및 데이터 신사업 발굴 등으로 디지코 전환을 가속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앞으로 KT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융복합 솔루션으로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우리가 지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방향은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효익 증대, 소상공인과 창업자와의 상생, 산업간 데이터 융합 및 분석을 통한 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라며 “KT를 이용하는 가족,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비씨카드 등 금융 자회사 데이터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신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금융사 등과 비교해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보안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또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이후 본 허가 라이선서를 취득하고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율 하반기는 되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삼성D, SGS 평가서 ‘컬러·시야각’ 우수성 입증

트루 컬러 톤, 퓨어 RGB 루미넌스 등
‘QD디스플레이’ 3건 인증 받아

삼성 QD 디스플레이가 우수성을 확인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컬러’와 ‘시야각’ 부문에서 글로벌 인증 업체 ‘SGS’ 인증 3건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증은 ‘트루 컬러 톤’과 ‘퓨어 RGB 루미넌스’, ‘울트라 와이드 뷰잉 앵글’ 등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색을 가장 다양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야각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떤 위치에서나 선명하고 밝은 화면을 즐길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인정받게 됐다.

SGS 평가 결과 QD디스플레이는 색 재현력이 얼마나 많은 색을 표현하는지 지표인 ‘BT2020’ 기준 90% 이상, 컬러 볼륨이 DCI-P3 기준 120%에 달했다. ‘트루 컬러 톤’ 인증을 충족한 것이다. 기존 디스플레이는 BT2020 기준의 70% 중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삼성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서 관계자에게만 소개됐던 QD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설명이다.

또 QD디스플레이는 빛의 삼원색인 RGB 각각의 밝기 합이 빛을 합쳐 나오는 화이트 밝기 값과 같거나 많을 때 주어지는 ‘퓨어 RGB 루미넌스’ 인증도 받았다. 별도 화이트 픽셀을 추가하지 않고 본연의 색을 그대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65인치 TV를 60도 각도에서 시청할 때 정면 밝기의 80% 이상을 유지하며 ‘울트라 와이드 뷰잉 앵글’ 인증도 받았다. 여러 사람이 같이 TV를 시청할 때 어떤 위치에서도 최고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화이트OLED와 LCD는 각각 53%, 35%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는 빛의 직진성으로 인해 정면과 측면, 보는 위치에 따라 컬러나 밝기 차이가 발생하는데, 빛을 넓게 분산시키는 퀀텀닷의 광학적 특성 때문에 QD디스플레이는 현재 상용화된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 중 시야각으로 인한 화질 저하가 가장 적어, 측면에서도 정면과 비슷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호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작 기술, 플랫폼, 통신 인프라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초고화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답이 바로 ‘QD디스플레이’다. QD를 탑재한 세트 제품이 본격 출시되면 TV 화질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며 ‘현존하는 최고 화질’이라는 수식어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스팀 ‘2021 최고작’ 최다판매 부문에 펠어비스 ‘검은사막’

펠어비스의 ‘검은사막’이 글로벌 게임 서비스 플랫폼 스팀에서 발표한 ‘2021 최고작’ 최다 판매 부문(Top Sellers)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스팀은 매년 최고의 게임 Top 100을 ▲최다 판매 ▲인기 출시작 ▲최다 플레이 ▲얼리 액세스 졸업작 ▲베스트 VR ▲컨트롤러 지원 6개 부문으로 발표한다.

검은사막은 지난 해 스팀에서 총수의 기준 상위 100개 게임을 선정하는 최다 판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MMORPG 중 유일하다. 사이버펑크 2077, 헤일로 인피니트, 몬스터헌터 월드 등 글로벌 흥행작과 함께 선정됐다.

지난해 2월 북미 유럽 지역 직접서비스 시작 후 MMORPG 장르 스팀 판매 및 인기 순위 각각 1위도 차지했다. 그 이후 신규 클래스 전 세계 동시 출시 및 프로모션 효과가 더해져 7월 스팀 판매 순위 1위에 또 한번 올랐다.

검은사막 현지 이용자를 위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 대규모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10월에는 CCP 게임즈와 손잡고 첫 대규모 스팀 공동 할인 행사를 열어 전 세계 유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펠어비스는 검은사막 IP를 PC, 콘솔, 모바일 등 전 세계 모든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사다. 검은사막 모바일이 지난해 중국 서비스 판호를 획득하며 최근 현지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채윤정 기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투자 합의

에디슨, 법원 허가시 경영권 인수 계약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경영권 인수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는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측은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10일 중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측 역시 “합의가 완료됐다”며 “늦어도 10일 오후 4시 이전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